

## 秋季學術大會

일시 : 1992年 10月 16日, 17日

장소 :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 <研究論文>

#### 한·중·일 천문용어의 비교 분석

박 명 순, 최 승 언, 윤 흥 식 (서울대)

현재 우리의 천문학 용어와 북한 중국 및 일본의 천문학 용어를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았으며, 또한 중학교 과학 교과서 (5종), 고등학교 과학 I하 (8종)와 지구과학 (8종) 교과서에 나오는 천문학 용어를 조사 분석하였다. 북한의 용어는 재돌이(자전), 남돌이(공전)와 같이 순 우리말로 되어있는 것이 많았으며,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여도 우리의 것과 상이한 용어가 많았으며, 그중 특기할 만한 것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모든 외래어 용어를 그 뜻에 맞는 한자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스펙트럼을 光譜라고 표기). 일본의 용어는 惑星, 放射 등 몇 개를 제외하면 우리의 것과 거의 동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천문학 용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우리 주변 국가들은 제각기 자기들에게 맞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남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천문학 발전을 위해서는 천문학 용어의 통일은 물론 보다 뜻이 잘 통하는 쉬운 용어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 新교육과정 과학 교과에 포함된 天文學 분야의 韓·日對照

우 중 옥 (한국교원대학교)

韓國에서는 금년에 제6차 교육과정이 改訂되어 1966년부터 新교육과정이 실시되게 되었으며, 日本에서는 1989년에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전면적인 교육과정의 改訂이 행하여 졌고 1992년부터 小學校를 시초로 改訂된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韓·日 중고등학교의 과학(理科) 및 지구과학 교과에서 취급하게 되는 천문학 분야의 내용 편성의 특징을 兩國의 教育課程 文書를 통해 파악하고, 韓·日간의 횡적인 對照·比較를 통해서 공통적인 내용과 차이를 분석하며,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에서 우리나라 地球科學 教育課程에 필요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韓國의 제6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학교 과학의 수업시수 비율은 現行 10.5%에서 11.8%로 상향조정되었고 일본의 11.3%보다 다소 높아졌다. 중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천문학 분야는 취급 개념, 내용의 구성 및 전개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학습 학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 제작과정에서도 서술의 난위도 등의 차이가 예상된다. 韓國은 지구에서부터 우주까지 점